

“나무 해다 주고 청소도 하고...절일 그냥 다 해 줬지”



진현동 중리 마을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⑤ 토함산 불국사



대웅전 위에 있는 비로전

꽃샘이 지독한 날이다. 3월인데, 김바닥에는 언 곳이 많다. 진눈깨비도 흩날린다. 평일이어서인지, 오가는 사람이 드물다.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과 절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단지가 된 식당과 숙소들을 지나 절로 향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 록된 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니는 사람은 가뭇에 콩 나듯 보인다. 한참을 올라갔더니, 절 조금 못 미치는 곳에 할머니 두 분이 나물과 발작을 몇 가 지를 놓고 팔고 있다.

불국사는 절집 중 가장 완벽하다는 느낌이다. 신라인들의 이상적 피인인 불국. 현실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의지가 불국사를 낳았을 것이다. 불국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여래의 사바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서방정토이며, 마지막 하나는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이다.

극락전 처마 아래에서 발견된 멧돼지상이 화제가 되

어, 불국사에서는 '복돼지 출현 100일 기념 법회'를 열 고 있다. 안양문을 지나 극락전으로 향한다. '안양'이 란 극락정토를 이르는 다른 이름이니, 의미는 바로 통 한다. 국보 27호인 아미타불을 배알한다. 이어 대웅전 으로 향한다. 극락전에서 대웅전으로 가려면 몇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한다. 불국사를 만든 이의 치밀한 계산 이 숨어있는 배치이다. 대웅전보다 조금 높은 곳에는 불법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전이 있다. 지관인을 취한 비로자나불은 내 안의 부처를 찾으라며 설법을 한다.

“거 사는 사람들은 거 살고, 여 사는 사람들은 여 살고, 여는 중리 마을. 요 위에 가면 팔박이 있고, 요 아래 가면 아랫말 있고, 조 밑에 가면 문리 마을. 저 위에 새마을이라고 있고, 또 상가들 있고, 저 꼭대기 가면 진터라 있고, 고걸 합해서 진현동이라.”

마을 소개가 끝난 후, 마을과 절이 무슨 관련이 없 나고 물었더니, 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옛날에 불국사 나무 때고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나무 해다 주고 그랬어요. 요새 스님들은 모르겠지



석가탑

‘참나’를 찾아가는 원명신 보살

“부처님 닮을라든 날마다 부처님에게 절 해야지”



매일 아침 석굴암으로 출근을 하여, 점심 공양이 끝난 후 절에서 나온다는 원명신(60, 경주 구정동· 사진) 보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목욕탕이나 다니겠죠.”

그녀는 경주 시내에서 도보로 석굴암까지 오간 다. 오는 데만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다. 힘들 지 않느냐는 말에 웃음으로 답한다.

“부처님 닮을라든 날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이나 해야지요.”

불교에 귀의한 지가 17년 되었다는 그녀. 기복에 얽매었던 지난 시절에 대해 한참이나 이야기 한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했다는 그녀. 하지만 인연이 닿은 큰스님의 설법을 듣고 문득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 전에는 기복을 다녔거든요. 울산 문수암 하면 다 알잖아요. 시댁 어른들 따라 기복을 다녔는데, 그거 아이더라고요. 그래. 참 나를 찾는 공부 시작할 지는 한 철팔년 됐지요.”

“기복”과 “참 나”라는 말에서 깊이가 느껴진다. “여덟시에 와가지고 저기 석굴암까지 걸어가거 든요. 그래 예불 마치고나면 이 시간 되지요.”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석굴암에 있는 부처 를 뵈려고 하였다. 정성이 보통이 아니다. 매일 두 시간 이상을 걸어서 찾아가는 자기 안의 부처를 찾 는 그녀. 그녀의 마음밭에 파랑계 물아나는 새싹들이 보일 것만 같았다.

“한 법당에 가면 팔십 프로는 아니예요. 빈다고 있는데, 누구한테 빌니까?”

맞는 말이다. 제 안의 부처를 두고, 부처상을 향 해 빌기만 한들 무엇이 이루어지랴. 세상의 인연치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단가. 찬 바람 한 줄기가 이마를 쳤다.

호텔·식당 벗어나 중리마을 “...고걸 합해서 진현동이라”

‘우말’ 동네 이름도 없어...현재 상가 두 번 철거 후 형성 절까지 운행 수단으로 코끼리 열차 계획, 주민 반응 냉랭

다보탑과 석가탑도 가히 압권이다. 너무 많이 봐서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석탑은 통일신라가 이룬 우리문화의 자부심이다. 다보탑은 과거의 부처이며, 동방 보정세계의 교주이다. 다보탑을 세울 경유에는 반드시 쌍탑을 세워 나머지 하나로 석가모니를 상징한다. “다보탑이 보탑 중 자리의 반을 석가모 니께 내주며 그곳에 앉기를 청하니, 석가모니는 즉시 보탑으로 들어가 결가부좌를 하고 다보탑과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라는 경전의 내용에 근거해서이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을 떠올리며 그림자 가 없었는 무영탑(석가탑)을 뒤로 하고, 절을 나와 한참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부처의 세상은 더 높은 곳에 있고, 보다 낮은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피 스틸과 호텔과 식당이 즐비한 상가를 벗어나니 한적 한 농촌마을이 보인다. 중리 마을회관에는 마을 사람 들이 저마다 노란 동전 한 주먹씩 가지고 화투를 치며 재미나게 논다. 한참 기다렸더니, 김법담(72, 진현 동 중리)이 들어볼 것이 뭐 있냐면서 판을 벗어난다.

만, 마을 사람들이 나무도 해다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냐?”

말끝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있다. 곁에 있던 김해 봉옹(70)이 말을 꺼낸다.

“도로 파손되면 옛날에 부역이라고 있었어요. 일 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해 줬어요. 지금 있는 스님들 그런 시대를 모른다고. 옛날 주지 스님이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최상문씨라고. 강원에 있었던 사 람도 이름은 생각 안 하는데, 이 동네 사람이었고, 오 공필이라는 사람도 개곡 사람인데 이 동네 와서 살 다가 석굴암 주지를 했어.”

스님들의 속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결혼 했다카면 다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난가. 가 족은 다이 마을에 살았지.”

어렸을 때, 풀 배러 토함산에 갔다가 초파일이면, 사과배 배 같은 과일을 얻어먹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공양한 음식이 배고픈 이들의 입으로 들어갔 으니,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

다. 절 앞에 있었다는 마을 이야기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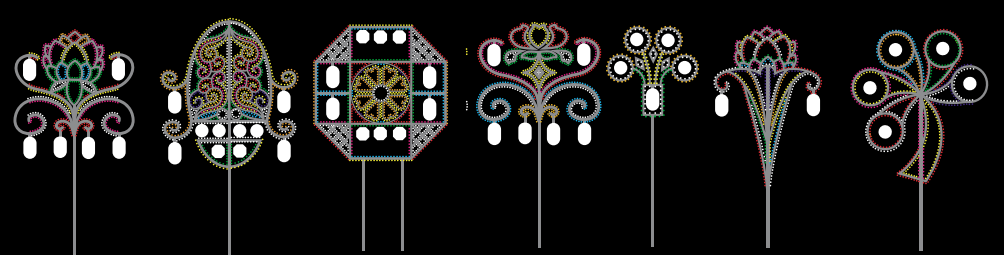
“불국사 우말이라 했어요. 진현동 우말이라 했는 데, 지금은 완전히 이름도 없어졌어요.”

현재 생긴 상가도 두 번의 철거를 거쳐 형성된 것 이라 한다. 절렁한 상가 건물 주위에 코끼리 열차 운 행을 반대하는 상가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주차장에서 절까지의 거리가 상당히므로, 경주시와 절 쪽에서는 운행 수단을 강구하는 모양인데, 상가 쪽과 마찰이 인 것이다.

취나물, 싸리대, 철쭉대, 잔대(참딱주) 등 이름도 뜻 뜻한 나물들이 어우러진 산채 비빔밥은 성과 속의 사이에서 잘 비벼졌다. 철쭉대 나물을 먹는데, 문득 백석의 ‘여승’이란 시를 떠올렸다.

불국사=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어두운 세상 밝히는 찬란한 빛의 세계 **새로운 연등** 마음의 빛으로 승화하시고 소원성취 하소서



소품형(가로등대용)-각종 행사시 연등걸이대로 사용가능



아치형-사찰입구 및 경내에 설치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전구는 LED로써 필라멘트 전구보다10%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매우경제적임.



이투엘아이엔씨 WWW.E2LINC.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2가 10-1번지 제작 및 납품문의:02-2633-4955